

2012 런던올림픽대회 의료진의 윤리 인식 및 고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¹,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스포츠의학실²김 은 국¹ · 김 태 규²Ethical Awareness and Concerns of Sport Practitioners
for the Summer Olympic Games 2012Eun Kuk Kim, MD, PhD¹, Tae Gyu Kim, PhD²¹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²Taen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of Korean Olympic Committee, Seoul, Korea

The healthcare for elite athletes has the potential to create many ethical issues for sports practition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sports practitioner and an athlete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traditional doctor-patient relationship.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f them to date. To investigate the ethical awareness and concerns in sports medicine field, we surveyed the responses of Korean medical team to a questionnaire during the Summer Olympic Games 2012.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access a wide-range of common ethical issues in sports medicine; conflict of interests, confidentiality, pediatric athletes, 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s, infectious disease, innovative therapies, medical advertising. Twenty-nine out of 32 sports practitioner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90.6%). Respondents identified many ethical matters concern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thletes-as-patients in sports medicine. This study has started the process of identifying contemporary ethical problems with regard to the sports medicine, and there should be further studies dealing with these problems.

Key Words: Ethical issue, Sports medicine, Questionnaire

서 론

스포츠의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의료윤리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뇌사, 줄기세포 및 낙태 등의 생명과 관련된 윤리문제

들이 주된 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과 달리 운동 선수를 환자로 대함으로써 나타나는 스포츠의학 분야만의 독특한 윤리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즉,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환자의 정보는 외부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원칙들이 스포츠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수의 장기적인 건강 보다는 단기간의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일련의 치료 과정을 선수가 소속된 팀의 지도자나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기도 하며, 때로는 언론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선수들만큼이나 스포츠의학 종사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들이 존재한다. 즉, 부상 선수를

Received: October 11, 2012 Revised: October 23, 2012

Accepted: November 6, 2012

Correspondence: Tae Gyu Kim

Taeneung National Training Center of Korean Olympic Committee, 27 Hwarang-ro, Nowon-gu, Seoul 139-800, Korea
Tel: +82-2-970-0066, Fax: +82-2-970-0060

E-mail: ktk7718@gmail.com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일반적인 의학적 적응보다 빠른 속도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복귀 후 고강도의 훈련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다. 저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부상에 대해 선수나 지도자가 비현실적으로 빠른 경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및 일반적인 임상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사 결정에 위배되는 결정을 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이러한 의사 결정에서 스포츠의학 종사자들은 팀 내에서의 신분이나 위치 등에 따른 외부적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료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존에 발행된 문헌들에서는 대부분 주관적 의견을 다루는 것들이 많고, 의료진들의 윤리 인식이나 주요 관심사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한 경우는 드물다¹⁾. 특히 국내에서는 스포츠 의료인들이 이러한 의료윤리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 스포츠의학 분야의 현장에 종사해온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종목별 전담 트레이너들로 구성되어 국내 스포츠 의료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2012 런던 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의료팀을 대상으로 스포츠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스포츠의학 분야의 주된 윤리적 이슈들로 최근까지 공통적으로 논의 돼오던 주제들, 즉, 치료 목적의 상충된 이해관계(conflict of health goal), 비밀 유지, 미성년 선수와 관련된 문제, 약물 등 도핑 행위,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 적용, 의료 광고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심층면접 과정을 통한 설문조사를 이용해 스포츠 의료진의 개인적 반응을 조사하였다²⁾.

연구 방법

1. 설문지

경험 많은 올림픽 의료진에게도 현재까지 스포츠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자료조사 경험이 많지 않아,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논의돼오던 윤리적 이슈들을 포함하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기본 정보와 통계적 자료들을 위한 세부 질문들을 포함하였으며, 스포츠의학 종사 기간, 관련 종목 및 전문 과목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문항은 서론에서 언급된 7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질문으로,

의료진이 현재까지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 상황들을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폐쇄형 질문으로 작성하여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럼으로써,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한 윤리적 인식과 관심 내용들의 윤곽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개별 의료진의 심도 있는 답변을 포함하지 못하는 단점을 줄이기 위해 각각의 질문 마지막 예시에 '기타'란을 두었다. 마지막 두 문항들 중 아홉 번째는 위의 7가지 주된 이슈들 외에 각자 임상에서 느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험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문항으로 스포츠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등 5명의 스포츠의학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폐쇄형 질문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재평가에 따른 합일점 도출을 통해 설문지의 객관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배제하는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이용하여 최종 수정 후 사용하였다.

2. 설문조사 및 분석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대회의 대한민국선수단 의료팀 구성은 의사 5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7명 및 종목별 전담 트레이너 18명으로 총 32명으로 구성되었다. 저자들은 대회기간 동안 각각의 올림픽 의료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심층면접 과정을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축구 종목의 의사 1명과 트레이너 2명은 선수촌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장들을 이동하는 일정으로 인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29명의 의료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응답률은 90.6%였다.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폐쇄형 질문에 대해서는 각 질문에 대한 다빈도 답변들을 분석하여 빈도 순으로 분석하였고, 개방형 답변에 대해서는 그 중심 주제를 파악하여 요약한 후 가급적 직접 인용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익명성을 유지하였고, 답변의 내용들 중 답변자의 신분이 유추에 의해 밝혀질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답변을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대회 기간 중 설문조사에 응한 전체 응답자 29명 중, 의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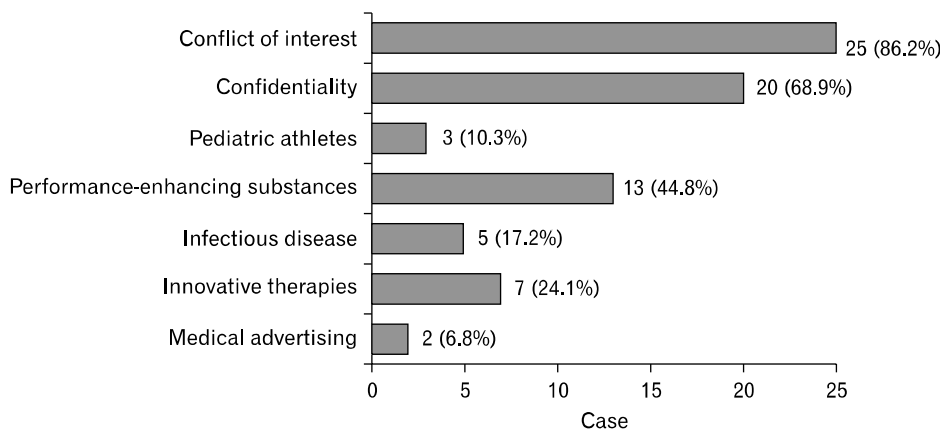


Fig. 1. Responses of Korean sports practitioners to the questionnaire concerning ethical issues in sports medicine.

간호사 및 대한체육회 소속 물리치료사들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전체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치료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종목별 트레이너는 각각 레슬링, 배드민턴, 양궁, 수영, 태권도, 유도, 역도, 핸드볼, 탁구, 육상, 체조 종목 선수들을 전담으로 관리하였다. 이들이 스포츠의학 분야에 종사해온 기간은 평균 9년이었으며, 29명 중 26명(89.7%)이 일반 의료와 달리,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만 접하게 되는 고유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7가지 주된 이슈들 중 ‘이해관계의 상충’과 ‘비밀 유지’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이 가장 많이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였다(Fig. 1).

1.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s)

의학적 치료의 목적이 장기적인 건강증진보다는, 선수나 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단기적으로 운동 능력을 회복시켜 경기에 복귀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 의료인으로서 경험한 윤리적 도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총 138건의 응답이 있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부상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보다 선수나 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빠른 경기복귀를 위해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집중하는 치료 권장’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 정도에 대해 선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실제보다 경미한 것처럼 설명한 경우’가 31건이었고, ‘부상 정도가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선수의 경기 참여에 동조해야 하는 경우’가 19건이었다. 그 밖에도 ‘의사와 물리치료사 및 트레이너 간에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13건이었으며, ‘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보다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보다 부상 회복이 빠르다는 경험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12건이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훈련 참가 때문에 선수가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10건 등이었다.

2.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선수들의 개인적 병력을 지도자나 언론 등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스포츠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총 50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지도자에게 선수의 부상 및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하므로 비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상 선수 치료 과정에서 비슷한 부상 선수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17건으로 많았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치료 과정 중 부득이 부상 부위 및 정도가 노출’되는 경우가 9건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선수의 병력을 안다는 사실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 등이 있었다.

3. 미성년 스포츠 선수(Pediatric athletes)

미성년 스포츠선수를 진료할 때 성인 선수를 대할 때와는 다르다고 느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기타 의견 3건을 포함한 총 50건의 응답이 있었다. 이 중 15건의 답변은 ‘성장기 선수에게 치료 금기이거나 혹은 장기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당장의 경기 성적을 위해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에 집중한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건의 답변은 ‘미성년 선수에게 진료나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즉, 선수 의견 무시’가 많았다. 또한 ‘성인 선수들에 대한 우선적인 치료 집중’이 8건, ‘중요한 의사 결정 시 미성년 선수의 보호자와 상의하지 않음’이 7건, 그리고 ‘미성년 선수에 대한 하대 및 수치심 유발’이 3건 등이었다.

4. 약물(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s)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과 같은 도핑 위반이나 기타 약물 복용 등과 관련하여 경험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총 50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특히, 의료진들 중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트레이너들에서 많은 응답이 있었다.

이 중 ‘선수들의 약물 및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신뢰에 대해 방관한다’는 답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훈련 및 경기 참가를 위해 진통제 등의 과다복용 유도’가 13건이었다. 특히 ‘경기기간 중 여자 선수들의 생리 조절을 위한 피임약 복용 권유’가 7건이었으며, ‘임의로 건강 보조제 및 운동 보조제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6건이었다.

5. 전염성 질환(Infectious disease)

간염이나 유행성 결막염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가진 선수의 치료 및 경기 참가 등과 관련하여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총 27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 중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입견으로 치료 행위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개인적 병력을 경우에 따라 다른 선수나 지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5건, ‘선수의 전염성 질환 병력 청취 과정에서의 어려움’,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기간 중 격리된 선수를 대하는 어려움’ 등이 각각 4건이었으며, ‘다른 선수들에게 전염될 위험을 알면서도 선수를 격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3건이었다.

6. 신의료 기술(Innovative therapies)

최고의 경기력을 원하는 선수들은 기존의 치료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의료진으로써 느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총 52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러한 신의료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고민은 특히, 의료진들 중 의사들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이 있었던 이슈였다. ‘치료 적용 및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나 지도자의 강한 요구에 못 이겨 신의료 기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본인의 임상 경험에 근거하여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가 14건이었다. 또한 ‘본인의 연구나 새로운 의료 장비의 임상 검증을 위해 선수에게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가 9건이었고, ‘새로운 치료법에 아직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권유’가 7건이었다.

7. 의료 광고(Medical advertising)

스포츠 선수를 대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 광고나 소속팀과의 스폰서 계약 등과 관련된 의료 마케팅을 접하면서 느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총 31건의 응답이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은 9건의 답변은 ‘치료를 위해 다양한 제품 등을 소개하지 않고, 계약된 특정 제품만을 추천하는 경우’였고, 6건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의뢰

시, 특정 치료 기관으로 집중하는 경우’였고, ‘홍보를 위해 유명 선수에게 특정 치료나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와 ‘지인의 소개 등으로 영리 목적의 제품 등을 정확한 정보나 근거 없이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가 각각 5건이었다.

8. 개방형 답변들(Responses to open-ended questions)

위의 7가지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이외에 올림픽 의료진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들로는 ‘이상의 질문에서 다루어진 윤리적 이슈들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를 정신력 문제로만 인식하려 하는 경향’, ‘선수 본인의 의학적 상식이나 경험 부족에서 오는 치료 지연이나 회피’, ‘선수의 부상을 무시하고 무리한 훈련 등을 지속하다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 의료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9.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총 42건의 응답이 있었으며, 이 중 23건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향후 활발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17건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윤리 규범 또는 윤리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 밖에 ‘스포츠의학 분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윤리적 이슈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와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내 의료현실에 윤리선언은 시기상조이다’는 답변이 각각 1건이었다.

고 찰

본 연구는 대한민국 스포츠 의료인들이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 인식과 고민들에 대한 연구로, 설문 응답자들은 평균 9년 이상 관련 스포츠의학 분야의 임상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이다. 전체 응답자들 중 약 90%에서 운동 선수를 환자로 대하는 의료인으로서 스포츠의학 분야 고유의 윤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각각의 직업에 관계 없이 전체 의료인들은 공통적으로 의학적 치료 목적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의료인으로서 선수의 건강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해 가장 많은 윤리적 도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윤리적 이슈들 중 의사들은 신의료 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트레이너들은 주로 약물 복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윤리적 고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치료의 목적 등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의료인들이 윤리적 도전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인들은 일차적으로 질병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스포츠의학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목적으로의 건강 추구보다는 단기 경기에 조기 복귀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인 경우가 많다³⁾. 따라서, 스포츠 의료인은 선수의 장기적 건강과 단기적 운동능력 회복 사이에서 윤리적 도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스포츠의학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의료에서 나타나는 의사-환자의 관계와 달리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는 지도자나 소속팀과 같은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때 많은 스포츠 의료인들은 일반적으로 부상 선수의 장기적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염려하면서도 선수가 원하는 치료를 시도하고자 하는 양면적인 윤리적 가치를 보인다고 하며, 때로는 본인의 윤리적 책임 회피를 위해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선수를 의뢰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1,2)}. 실제로 기존의 몇몇 의료윤리 지침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스포츠 의료인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스포츠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윤리적 합리화 보다는 선수-환자의 치료 선택에 대해 장단기적인 효과와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선수가 선택하고자 하는 치료가 혹시 제3자에 의해 강요 받은 선택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의 상충과 함께 많은 의료인들이 선택한 윤리적인 관심 내용은 선수들의 건강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일반적인 의사-환자의 관계에서 의사는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스포츠의학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밀유지를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지도자나 소속팀의 관계자, 때로는 언론에서도 선수에 대한 건강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이는 지도자나 소속팀이 선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스포츠계 내에서 통용되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⁵⁾. 이런 경우 의료인은 선수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위와 같은 비의료인과 의료 정보를 공유할 때 이런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선수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당황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이 선수가 소속된 단체에 의해 고용된 신분인 경우 선수-환자를 위한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는 더욱 위협받게 된다. 대부분의 스포츠 의료인이나 의료 윤리 학자들은 선수-환자 개인의 병력이 불필요하게 외부와 공유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²⁾, 의료진과 선수-환자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비밀 유지가 완전히 보장될

수 없음을 사전에 정확히 설명해 줄 것을 권장한다⁶⁾. 한편, 저자들은 스포츠 의료인이 선수-환자를 위한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외부에 거짓 정보를 알리는 것은 피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부상 선수 치료 과정에서 비슷한 부상 선수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스포츠계 내에서 의료인들의 위상이 더 높아져 외부적인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선수-환자를 위한 가장 적합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의료인들은 운동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이 윤리적 및 의학적 이유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의료인이 이러한 도핑 약물 복용과 관련되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로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벤 존슨의 스테로이드 복용 사건을 예를 들 수 있다⁷⁾. 본 연구에서도 선수들의 약물 복용 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문제가 세 번째로 많이 인식되는 윤리적 주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도핑이나 경기력 향상 관련 물질(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s)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스포츠 의료인들은 도핑 관련 전문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뿐더러, 스포츠 본연의 공정한 경쟁과 선수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선수와 의료인 모두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선수가 약물 사용에 대해 의료진에게 문의하는 경우, 의료진은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선수의 비밀을 유지하되, 실제 금지 약물 사용에 대해 알게된 경우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지 약물이 아닌 일반 소염 진통제의 과다복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복용이 결과적으로 선수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그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선수의 약물 복용을 줄이고자하는 의도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의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선수와의 상호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⁸⁾.

현대 의학과 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스포츠의학 분야도 계속 발전하며 새로운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신의료 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본 연구에서 네 번째로 많은 윤리적 관심을 보였던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치료 기술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명백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치료 적응 및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나 지도자의 강한 요구에 못 이겨 신의료 기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의학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들도 아직까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⁹⁾. 그러므로, 기존의 치료법들이 과학적으로 유효한 상태에서 새로운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면, 새로운 치료 기술에 대한 보다 관용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스포츠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라도 선수-환자에게는 그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신의료 기술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항상 의료인들을 윤리적 고민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스포츠 의료인은 이러한 신의료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선수-환자에게 그 치료 방법의 예상되는 장단점을 가능한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 전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이런 치료를 권장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전염성 질환을 가진 선수를 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윤리적 문제에도 다섯 번째로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치료 행위를 꺼리게 되거나, 비밀 유지와 관련된 응답들이 많았다. 신체 접촉이 많은 선수들에서 전염성 질환은 다른 선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런 선수만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화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의료인은 전염성 질환을 가진 선수에 대한 비밀 유지 및 권리 보호와 다른 선수들의 건강 유지와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전염성 질환을 가진 선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질환에 대한 전염 경로, 선별 검사, 추적 검사 및 예방 접종 등과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성년 선수를 대하면서 스포츠 의료인이 느끼는 윤리적 갈등으로, 경쟁적 경기에 참가해야 하는 성장기 선수-환자를 치료하면서 장기적인 비가역적 후유증 발생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이해관계 상충과 이에 대한 미성년 선수의 자발적 의사 결정 능력과 관계된 응답들이 많았다. 자발적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미성년 선수의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에서의 성공을 위해 선수의 최종적인 건강 유지를 우선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의료인은 더 많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⁹⁾. 그러므로, 미성년 선수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서 현재 많은 의료인들 및 윤리학자들은, 미성년 선수의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 선수 자신의 의사 결정이 그들에게도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면 외부의 의견들보다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²⁾.

최근 의료광고는 매우 보편적이고 합법적이며, 비윤리적이

지도 않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합법적인 의료 광고나 스폰서 계약 등과 관련해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의료인들의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윤리적 고민은 아마도 의료인 자신이 의료광고의 내용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인 양심이나 정직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윤리적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의료인에게 환자와의 신뢰관계는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치료적 요구를 갖고 있는 선수-환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진 이슈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들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와 같은 설문조사만으로 모든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¹⁰⁾.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의학 의료인들의 윤리적 고민과 윤리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는 첫 단계 연구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며,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각각의 윤리적 문제들을 바탕으로,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이러한 윤리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들이 내리는 의학적 판단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는 조사를 시행하고, 이러한 윤리적 결정이 의사, 물리치료사 및 트레이너와 같은 직역 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류하며, 스포츠계 내에서 스포츠 의료인의 고용 형태에 따른 스포츠 의료윤리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일반 의료와 스포츠 의료 사이의 윤리적 관점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들을 통해 국내의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연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한 이번 런던올림픽에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박원하 의무위원장님 이하 대한민국 선수단 의무임원으로 참여해 주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종목별 의무 트레이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회기간 중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 주신 강현용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Anderson LC, Gerrard DF. Ethical issues concerning New Zealand sports doctors. J Med Ethics 2005;31:88-92.
2. Bernstein J, Perlis C, Bartolozzi AR. Normative ethics in

- sports medicine. Clin Orthop Relat Res 2004;(420):309-18.
3. Saltin B. Issues in sport science. Scand J Med Sci Sports 1995;5:315-7.
4. McNamee M, Phillips N. Confidentiality, disclosure and doping in sports medicine. Br J Sports Med 2011;45:174-7.
5. Miller JM. Ethical issues in college health: athletic medicine. J Am Coll Health 1986;34:195-6.
6. Maron BJ, Brown RW, McGrew CA, Mitten MJ, Caplan AL, Hutter AM Jr. Ethical, leg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impacting medical decision-making in competitive athletes. Med Sci Sports Exerc 1994;26:S230-7.
7. Hoberman J. Sports physicians and the doping crisis in elite sport. Clin J Sport Med 2002;12:203-8.
8. Dunn WR, George MS, Churchill L, Spindler KP. Ethics in sports medicine. Am J Sports Med 2007;35:840-4.
9. Pipe AL. J. B. Wolffe Memorial Lecture. Sport, science, and society: ethics in sports medicine. Med Sci Sports Exerc 1993;25:888-900.
10. Sperryn PN. Ethics in sports medicine: the sports physician. Br J Sports Med 1980;14:84-9.